

동북아 외교외사 고급인재양성 프로그램

(东北亚外交外事高端人才博士培养项目)

2011년 국무원 학위위원회는 ‘국가 특별수요에 부응하는 박사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시작하였고, 대련외대가 신청한 ‘동북아 외교외사 고급인재 양성 프로젝트’는 대련외대 교사와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2013년 국무원 학위위원회의 허가를 받게 되었고, 드디어 2014년부터 학생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동북아 외교외사 고급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우리 나라 동북아 전략과 안보 수요에 부응하고, 과학발전의 노선을 깊이 실시하며, <국가 중장기 인재양성 계획요강> 및 <국가 중장기 교육개혁발전 계획요강>의 요구에 따라 실시하는 박사 양성 프로그램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국가 수요를 목표로 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견인력으로 삼으며, 인재양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가 동북아 지역의 안전과 발전을 유지하는 수요에 부응하여, 기존의 동북아 연구에서 전통적인 안보에 대한 연구가 위주로 진행되고 비전통안보에 대한 연구가 결핍하고 다양한 언어와 학문 분야를 넘나드는 고급인재가 결핍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의 취급내용과 양성목표는 “동북아지역의 비전통안보문제의 연구와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공공외교, 사회문화안전, 생태안전 등 비전통안보 영역의 고급 연구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서 우리 나라 외교전략이 동북아 비전통안보 분야의 인재양성에 대한 절실한 수요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양성방안은 이론 수업을 증설하여 이론적인 기반을 든든히 다지고, 인재양성의 학문적인 특색을 강조하며, 또한 전문적인 테마 연구 등 과정을 개설하여 전공 특색을 살리고 인재양성의 목표를 강화하며, 국내외 합작 연구를 심화시켜 고차원의 실천 플랫폼을 조성하고 인재양성의 실용성을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와 동시에 다원화된 인재양성 방식을 구축하고 이중 지도교수의 시스템으로 인재양성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도모한다. 업계의 수요를 목표로 하고, 복합형, 응용형의 창의적인 인재양성 방식은 특수한 요구에 부합하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인재양성 방식의 개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